

오락가락 이과대 인력, 학생만 피해

김수혁 기자 sherkh@khu.ac.kr

【서울】본부의 행정직원인력조정안이 시행되자 이과대에서 인력 공백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는 성토가 계속 되고 있다. 본부는 유예기간 1년을 두고 이과대 행정인력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후 이과대 학생회가 이과대 신입 행정실장 발령을 두고 ‘행정인력 감축 책임자를 행정실장으로 발령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4월 4일 부총장실을 항의방문하기도 했다.

행정직원인력조정은 행정 거버넌스 개편의 일환이다. 부서별 정규직:계약직 비율을 정규직 3명당 비정규직 1명으로 맞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부총장실 이용성 실장은 “행정 거버넌스 개편에 따라 자연히 인력구조 조정도 필요해졌다”면서 “노동조합(노조)의 요구와 정부 시책 등을 반영해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을 늘리는 방향을 잡고 학교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고려해 3:1 조정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과대는 당초 정규직 3명과 계약직 9명, 총 1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다. 대학본부가 정한 3:1 조정안에 따르면 계약직을 3명으로 축소하고 2명의 정규직을 총원해 8명으로 조정해야 했다. 이과대 학장과 부

총장은 논의를 거쳐 정규직 5명과 계약직 4명, 총 9명의 인력을 두기로 합의했다. 이과대는 개강에 앞서 계약이 만료된 계약직 직원 5명분의 신규발령을 내지 않았으나 개강 이후 본부가 약속한 인력 총원이 이뤄지지 않아 공백이 발생했다. 인사발령을 위해서는 노사 동수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하지만 행정 거버넌스 시행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노조와 협상 문제로 신규 인사발령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이과대 전임 행정실장이 정년퇴임하면서 이과대 행정실은 지난해에 비해 반으로 줄어든 직원 6명으로 개강을 맞았다. 인력 부족으로 6개 학과 사무실은 폐쇄됐고 이과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학과별 실험실습 지원 등 모든 업무가 단과대 행정실 한 곳으로 집중됐다. 혼란이 가중되자 본부는 1년간 행정인력 원상복구를 약속해 문제는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3월 29일, 본부가 4월 8일자로 신입 이과대 행정실장에 정진봉 전 인사처장을 발령하자 또 다른 반발이 일어났다. 이과대 학생회는 ‘정진봉 신입 행정실장이 이번 행정인력 감축과 행정실 통합으로 인해 벌어진 혼란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4월 1일 이과대 학생회는 정진봉 실장과 부총장실에 공개질의서를 보내 4월 4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다. 정 실장은 이과대 학생회에 ‘해당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아는 바가 없으며, 인사발령 후 자세히 이야기 하자’는 답변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과대 학생회는 ‘무책임한 답변’이라며 4일, 본관 앞 시위와 부총장실 항의방문을 감행했다(아래사진).

항의방문 후 면담에서 이호창 서울부총장은 “정 전 처장은 이미 만들어진 개편안을 집행했을 뿐이다”라면서 “정 전 처장이 인력감축의 책임자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 부총장은 “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인력조정은 결정된 사안인 만큼 유예기간 동안 행정실장과 적극 협력해 이과대 자체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안을 만드는 데 힘을 쏟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과대 학생회 최인성(생물학 2016) 회장은 “인사행정을 총괄하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인력감축에 책임이 없었다는 부총장의 해명에 개운하지 못한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지금으로서는 학교로부터 더 이상의 인력감축을 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약속을 받아내고 싶다”고 말했다.

이과대는 늦으면 다가오는 22일까지 인력 충원을 완료하고 과사무실 복구 등 업무를 정상화하겠다는 계획이다.



THE 대학 영향력 평가 ‘국내 1위’

박소영 기자 notold@khu.ac.kr

우리학교가 영국 글로벌 대학평가 기관 ‘타임스고등교육(Times Higher Education, THE)’이 발표한 ‘2019 THE 대학 영향력 평가(THE University Impact Rankings)’ 종합 순위에서 세계 27위, 국내 1위에 올랐다.

올해 최초로 시행된 해당 평가는 그간 연구와 교육 측면을 중심으로 이뤄진 여타 평가와 달리, UN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달성에 대한 대학의 기여도를 반영했다. SDGs는 빈곤, 기아, 질병 등 공

공성 문제에 대한 해결 지향이 주를 이룬다. 이번 평가에서 우리학교는 11개 항목이 세계 200위 내 진입, 이 중 8개 항목은 국내 1위를 차지했다.

종합 순위는 필수 반영 항목(▲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위한 협력)을 기반으로 점수가 가장 높은 3개 항목을 합산해 도출됐으며, ▲지속 가능한 도시와 주거지(세계 1위, 국내 1위) ▲평화·정의 구현을 위한 제도(세계 26위, 국내 1위) ▲지속 가능한 산업화·혁신과 재생 가능한 인프라(세계 8위, 국내 4위) 항목 등이 가산돼 75개국 551개 대학 중 종합 27위에 오르며 국내 1위를 기록했다.

취업 정보 필요할 땐 ‘경희랜드’로

김재윤 기자 kjy0808@khu.ac.kr

【국제】우리학교 학생들이 만든 취업 정보 커뮤니티 ‘경희랜드(www.khland.kr)’가 지난 3일 문을 열었다. 온라인 웹사이트가 기반인 경희랜드는 국제캠퍼스에 소속된 각 단과대, 미래인재센터, 국제교류처 등에서 제공하는 취업 관련 채용 공고문, 전공 연수, 취업 교육 프로그램 등에 대한 다양한 소식을 전하고 있다.

경희랜드는 학생회관의 개방형 연구 공간인 오픈랩에서 활동하는 윤미리(기계공학 2014), 김민석(우주과학 2017), 최정원(기계공학 2010), 황희원(기계공학 2018) 씨가 의기투합해 개발했다. 윤 씨

는 “직접 취업 준비를 해보니 정보를 찾기가 번거롭고 한정적임을 깨달아 제작을 결심했다”고 전했다.

쌍방향 소통은 경희랜드의 큰 장점이다. 학교의 공식 정보들을 취합하는 한편, 학생들이 직접 취업 정보와 취업 관련 후기, 교육 행사 후기 등도 작성할 수 있다. 커뮤니티에서 만난 가입자들끼리 지속적인 교류도 가능하다.

윤 씨는 “우리 학교 취준생, 재학생 모두가 좋은 정보를 공유했으면 좋겠다”며 “자신이 속한 과나 동아리가 아니면 사람들과 교류할 곳이 마땅치 않는데 경희랜드에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복 교수, 독일 훔볼트상 수상

문하령 기자 moonbym@khu.ac.kr

우리학교 김종복(영어영문학) 교수가 국내 인문학자로는 최초로 ‘독일 훔볼트 연구상(Humbolt Research Award)’을 수상했다.

훔볼트 연구상은 인문사회·자연과학·공학 분야에서 매년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업적을 남긴 학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독일 자연과학계의 선구자 학자 알렉산더 폰 훔볼트(Alexander von Humboldt)를 기념해 제정됐다. 이 상은 독일 내 우수한 연구자들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 등 엄격하고 까다로운 심사과정으로 유명하다.

김 교수는 영어 및 한국어 언어 현상과 관련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진행한 것과 아울러 ‘A&HCI’를 비롯한 국내외 학술지에 논문을 다수 게재하는 등 국내 인문학 연구의 세계화에 크게 기여해왔다.

김 교수는 “이 상을 수상할 만큼 충분히 연구 업적을 이루었는지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아직은 학자로서 가야할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어 “세상에 관한 많은 경험과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국제 무대라는 큰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처한 학생들이 있다면 큰 꿈을 잃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SAMSUNG

실제 눈앞에 있는 듯 살아있는 자연색

TV를 넘어 새로운 비전이 되다

QLED 8K

Quantum

QLED 8K의 놀라운 화질을 가까운 매장 또는 삼성닷컴에서 경험해보세요

(주)크로스구조연구소기술사사무소
(주)네오크로스구조엔지니어링

건축구조기술사
공학박사
대표이사

김 점 한 (건축80)

T.02-529-2835 F.02-2057-2834
www.crossarc.co.kr

ARA (주)건축사사무소
아라그룹

대표이사/건축사
도시공학박사

왕 정 한 (건축82)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9길 26 (문정동 H비즈니스파크 C동 413호)
Tel. (02)549-6693 Fax. (02)549-6697
www.aragroup.co.kr